

비빔밥축제서 세계적 셰프 만난다

전북대 김미나 교수팀, '쿠킹콘서트' 개최 4개국 바비큐 직접 요리·강연·시식도 제공

전북대학교 김미나 교수팀(식품영양학과)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전주 비빔밥축제 기간 동안 '전세계의 바비큐 음식'을 주제로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초창 '쿠킹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9일부터 12일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시간대별로 전주 한옥마을 내에 위치한 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04년부터 국제 문화교류로 진행되고 있는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창의 도시 네트워크는 2004년부터 시작된 국제교류를 위한 문화네트워크로 음식(26), 문화(28), 디자인(31), 음악(31), 공예와 민속예술(37), 미디어 아트(14), 영화(13) 등의 7개 분야에서 국가별 창의도시를 지정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문화교류 및 협력을 통해 문화를 매개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주(음식창의도시),

부천(문학), 서울(디자인), 통영(음악), 이천(공예와 민속예술), 광주(미디어아트), 부산(영화) 분야에 창의도시가 지정되어 있다.

이번 쿠킹 콘서트에서는 유네스코 지정 음식 창의도시인 멕시코(엔세나다)와 미국(샌안토니오), 스웨덴(외스터순드), 중국(순더) 등 4곳을 대표하는 8명의 셰프가 참여한다.

이들은 각 도시를 대표하는 바비큐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이에 대한 강연도 진행한다.

또한 전북대 가족회사로 산학협력 활동을 하고 있는 ▶온리앤즈(스비드학원) ▶대풍수산(바지락초무침) ▶그린로드(작두콩피커) 등에서도 참여해

시민 및 해외 셰프들과 네트워킹을 도모한다. 이 밖에도 행사장 내에서는 전북대 예술대 학생들로 구성된 공연예술팀(지도교수 신혁진)의 축하공연도 진행되고, 쿠킹콘서트에 참석한 시민에게는 셰프의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미나 교수는 "한국, 한복, 한식으로 대표되는 전통문화의 중심인 전주시의 대표 행사인 전주 비빔밥 축제 기간 동안 개최되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초창 쿠킹콘서트를 통해 전주 시민과 해외 셰프들이 음식으로 하나가 되는 글로벌(글로벌+로컬)한 이벤트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우수 학술도서 발굴 '앞장'

전주대, 출판지원사업 선정 우수 도서 2편 출판 200만원 저자지원금·도서 제작 제경비 지원

전주대학교는 본교 교수의 저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원고 2편을 선정해 저자 지원금 200만원 및 도서 제작 제경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병수 교수



백광호 교수



백진우 교수

지난 9월 2일~11일까지 인문, 사회과학, 자연,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원고를 접수받고, 대학출판부 출판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우수 원고 2편을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원고는 ▲전공 한자(가제): 백광호·백진우 공저 ▲인생이란 무엇인가(가제): 한병수 저이다.

한문교육과 백광호 교수와 한국어문학과 백진우 교수가 공동으로 저술한 '대학 신입생을 위한' 전공 한자는 교육부에서 선정한 한문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중심으로 대학 초년생이 쉽고 흥미롭게 전공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참신하게 구성했다.

한자 어휘 부족으로 전공 능력 신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학생들의 전공 친숙도와 접근성을 높여 안정적인 대학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은성 기자

기초융합교육원 한병수 교수(교육)가 저술한 '인생이란 무엇인가(전도서 강해)'는 전도서의 본질을 '창세기 15장 1절'의 탁월한 주석으로 설명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전도서 강해와 다른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성경과 교부학, 개혁과 정통주의 신학 연구자인 저자(한병수)의 도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원고는 10월 중 출판 계약을 체결하고 11월까지 도서 교열 및 교정, 편집, 디자인을 거쳐 연말에 출판하게 된다.

전주대 관계자는 "본교 출판부에서 처음 시도한 출판지원사업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수 학술도서 발굴을 통해 대학출판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도 고교 입학 전형과 절차를 한눈에

도교육청, 오늘 평준화지역 일반고 입학전형 설명회 개최

전북도교육청은 도내 중학교 진학부장과 지역 교육지원청 고입담당 장학사를 대상으로 2020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학 전형요강 및 내신 성적 산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도내 학생들의 고등학교 진학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설명회는 오늘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평준화 지역 고입

전형 일정 및 원서작성 방법, 체육특기자·다재녀·지체부자유자 및 희귀병질환자 등 선배정 지원, 선배정 규정 시행 계획, 특례입학 대상자 규정 시행 안내 등이다.

2020학년도 배정인원은 학급당 정원이 전주·익산 27명, 군산은 28명으로 총 9,647명이며 세부적으로 전주 6,021명·군산 1,736명·익산 1,890명이다.

자유형사립고로 운영되던 군산중앙고와 익산남성고가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2019학년도보다 배정인원이 87명 가량 증가했다.

전형방법은 평준화지역 학급별 입학정원 내에 해당하는 자를 남녀구분 없이 내신성적으로 선발하며, 학교 배정은 일반고 합격자에 한해 선지원·후추첨 방법으로 성적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 희망순위에 따라 추첨 배정한다.

지역별로는 전주 일반권역 1~13지망(남녀), 전주 혁신권역 양현고 +1~6지망(남녀), 군산은 남학생 1~4지망, 여학생 1~3지망, 익산은 남학

생 1~4지망, 여학생 1~5지망까지 희망순위를 작성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2월 23~26일까지로 해당 중학교에서 나이스를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고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 학교 배정발표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이번 설명회는 중학교 진학부장들에게 내년도 고교 입학 전형의 이해를 돕고, 변화되는 내용을 안내하기 위한"이라며 "전형방법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 학생들의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 오산남초 다목적 강당 '꿈터' 개관식 가져... 고향 찾는 동문들의 마음의 쉼터로

익산 오산남초초등학교(교장 임승자)는 2일 다목적강당 개관식 및 총동문회 발족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해 본교 10회 졸업생인 김덕룡 전 민주평통자치문회의 수석부회장, 김대오 도의원 및 학생, 학부모, 동문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목적강당 이름 공모를 통해 확정된 '꿈터'는 지상 2층 규모로 체육관, 식생활관, 음악실 등으로 구성돼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해졌다.

이 공모는 오산남초 학생,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승환 교육감은 격려사를 통해 "농촌의 작은 학교가 지역사회에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물론 고향을 찾는 동문들의 마음의 쉼터로 더욱 살리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김덕룡 전 민주평통자치문회의 수석부회장은 "학생수 감소로 폐교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몇 년 전



익산 오산남초초등학교가 2일 다목적강당 개관식 및 총동문회 발족식을 가졌다.

에 듣고 몹시 애대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멋진 '꿈터' 개관식에 참석해 후배들의 공연을 보니 가슴 뿌듯하다"며 개관을 축하했다.

황규연 오산남초 운영위원장은 "우리 후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겨 너무 기쁘다"며 "다목적강당 '꿈터'를 통해 후배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능력을 맘껏 펼치고, 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국기능경기대회서 미래 향한 도전을!

11일까지 부산백스코 등 6곳에서 열려... 도내 13교 77명 참가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미래를 향한 도전을 펼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11일 부산광역시에서 열리는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도내 13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77명이 참가해 30개 직종에서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다.

올해로 54회를 맞는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인 지변을 확대하고 기술 향상 및 우수 숙련기술자 발굴과 기술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7개 시·도 대표 선수단 1,847명과 관계자 2만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기술, 또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부산백스코와 부산기계공고 등 6개 경기장에서 치러지며

참가 학생들은 같고 뛰어난 실력을 바탕으로 8일간 열전을 벌인다.

전북에서는 특성화·마이스터고 13개교 학생 77명이 폴리메카닉스, 용접, 그래픽디자인, 산업용로봇, 자동차차체수리, 화훼장식 등 30개 종목에 출전한다. 대회 입상자는 메달과 상장, 상금을 함께 받는다. 입상자 중 일부에게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직종별 금메달 수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국가대표 선발권 출전권을 얻는 등 다양한 혜택을 얻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기량을 마음껏 펼쳐며 숙련기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http://council.jinan.go.kr

더 큰 열정으로 진안군민의 뜻을 모아

군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진안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항상 열린 의정으로 군민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군민이 원하는 올바른 의회로
진안군의 행복미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안군의의회
http://council.jinan.go.kr

제8대 진안군의의회 | 군민의 뜻에 귀 기울이는 바른의회!